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결정적인 순간, _____

- ①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
- ②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는 무욕을 배워야겠어.
- ③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해.
- ④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낫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
- ⑤ 처음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겠어.

2. (물음) 방송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리 외의 신체 부위에도 가마가 존재하겠군.
- ② 정수리 부위에 있는 모와를 가마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가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쪽에 위치하겠네.
- ④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가마는 서로 다른 쪽에 있겠군.
- ⑤ 정수리 오른쪽에 1개의 가마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겠네.

3. (물음) 강연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사 예절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 ② 동서양의 발상머리 교육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③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
- ⑤ 식사 시간 외에는 가족 간의 만남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다.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통된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예인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②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③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인으로 볼 수 있다.
- ④ 일반인이더라도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 ⑤ 연예인의 위법 행위에 관한 뉴스 보도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 반성과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러닝머신 사용 안내

본 제품에 있는 ㉠주행 속도 조절 기능은 최저 0.8km/h부터 최고 16km/h까지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속도 설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경사도 조절 기능은 저강도와 고강도의 조절을 통해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계기판에 장착되어 있는 ㉢TV 모니터는 장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 측정 기능은 운동 전과 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디션에 따라 ㉤운동 시간을 잘 조절해야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의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② ㉡: 약간 어려운 내용의 학습 자료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③ ㉢: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의 지루함을 덜어준다.
 ④ ㉣: 학습에 따른 성적 변화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⑤ ㉤: 상황에 따라 학습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7. <보기>는 ‘한국어 국외 교육’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한국어 국외 교육* 실태㉠

II. 본론

1. 한국어 국외 교육의 필요성

가.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의 증가

2. 한국어 국외 교육의 문제점

가. 현지 수요자를 위한 교육 기관 부족

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한 교육 교재 부족

다. 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부족

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부족㉢

3. 한국어 국외 교육의 개선 방안

가. 현지 수요자를 위한 개방형 교육 기관 증설

나.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다.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III. 결론

한국어 국외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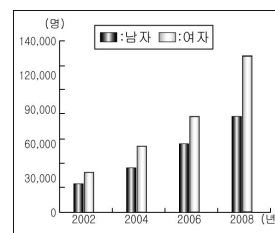
* 한국어 국외 교육: 외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 ① ㉠에는 ‘한국어 국외 교육 현황’에 관한 도표 자료를 제시한다.
 ② ㉡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로 바꾼다.
 ③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한다.
 ④ ㉣은 ‘II-2-나’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교육 교재 개발’로 바꾼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국어 국외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 촉구’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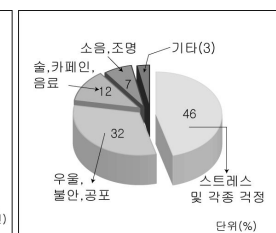
8. <보기>는 ‘수면 장애’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연도별 수면 장애 진단 환자 수



(나) 수면 장애 원인



(다) 연도별 수면 장애 입원 환자 수 (단위: 명)

연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남	730	1,035	1,482	2,239
여	337	371	580	917

(라) “수면 장애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데 치료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병이 깊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수면 장애가 있다면 해당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고 상담 및 입원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등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중 -

- ① (가)+(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면 장애 환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가)+(다): 진단 및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을 들어 수면 장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
 ③ (나)+(다): 여성 수면 장애 입원 환자 수가 남성보다 적은 이유가 여성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기 때문임을 밝힌다.
 ④ (나)+(라): 스트레스나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을 들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⑤ (가)+(다)+(라): 여성의 경우 진단 환자 수에 비해 입원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주목하여 여성에게 좀더 적극적 치료 행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9. <보기>는 여행을 다녀와서 쓴 소감문의 일부분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부분의 절은 여러 개의 산자락이 겹쳐 있는 그 안에 위치하고 있다. ㉠운주사는 다르다. 단 두 개의 산자락이 만나서 살며시 운주사를 감싸 안고 있다. 그 감싸 안은 손길 끝에서 운주사는 시작되고 있다. 마치 폭이 넓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팔로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운주사를 직접 보니, 소설 『장길산』에서 읽었던 운주사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소설 『장길산』에서 읽었던 운주사에 관한 이야기에 따르면, 운주사에 있는 천불천탑은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던 노비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운주사(運舟寺)는 원래는 배를 부린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노비들이 천불천탑을 만들 때, 그들은 어떻게 미륵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스님께 여쭙었고, 스님은 ‘미륵님은 바로 자네들의 모습이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운주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천 가지 모양의 탑과 불상은 마치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다.

- ①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에 ‘하지만’을 삽입한다.
- ② ㉡은 앞 구절과 중복된 표현이므로 ‘이’로 바꾼다.
- ③ ㉢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바라던’으로 고친다.
- ④ 글의 흐름에 맞추어 ㉣을 삭제한다.
- ⑤ ㉤은 호응을 고려하여 ‘모습이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10.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방송곡에 사연을 보내려고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은?

※ 공지 사항

맛있는 피자 10판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피자가 필요한 사연을 올려 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피자를 보내드립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지켜주세요.

<조건>

-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이유를 밝힐 것
- 필요함을 완곡하게 드러낼 것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색색시 같은 우리 반 친구들은 다른 만처럼 다 함께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자 10판은, 어쩌면 우리 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함께 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 ② 우리 반은 피자입니다. 우리 반은 사랑이 피자빵처럼 넓게 퍼져 있는 담임선생님과 고소함을 풍기는 치즈 반장, 상큼함을 간직한 토마토 부반장을 중심으로 둥글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10판은 꼭 우리 반으로 와야 합니다.
- ③ 피자는 피망, 햄, 토마토, 고구마, 치즈 등이 빵과 잘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내는 봄의 교향악과 같은 음식입니다. 개나리가 노란 꽃망을 터트리는 소리, 붉게 물든 진달래가 손짓하는 소리 같은 봄의 교향악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세요.

- ④ 지난 모의고사 때, 1학년 4반 후배들이 우리 2학년 4반 선배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반도 1학년 4반 후배들에게 뭔가 해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피자 10판을 1학년 4반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우리 반은 공부를 못합니다. 지난 중간고사에서 5등 안에 들면 담임선생님께서 피자를 사 주시기로 했었지만, 또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담임선생님께 피자 10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께 우리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1.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보기 1>—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ㄱ. 화자와 청자의 상호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로 ‘-아라/어라’로 실현된다.
- ㄴ. 청자가 없는 일방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로 ‘-(으)라’로 실현된다.
- ㄷ. 화자와 청자의 상호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되 경계(警戒)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로 ‘-(으)리라’로 실현된다.

—<보기 2>—

- a. 청년들이여, 꿈을 찾으라.
- b. 철수야, 그러다 넘어질라.
- c. 영화야, 이것 좀 먹어 봐라.

	ㄱ	ㄴ	ㄷ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c	a	b
⑤	c	b	a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흔히 ‘별에 쏘였다.’, ‘별에 썩었다.’ 둘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둘 다 맞다. ‘쏘이다’의 준말은 ‘썩다’인데, ‘-이-’가 앞에 붙으면서 줄어드는 경우(썩어)와 뒤에 붙으면서 줄어드는 경우(쏘여)가 있기 때문에 ‘쏘이어’의 준말로 ‘썩어’, ‘쏘여’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별에 쏘이였다/썩이였다/쏘이였다’와 같은 세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 ① 살이 쪼 작년에 산 바지가 너무 썩었다.
- ② 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책상을 띄었다.
- ③ 산 정상에 올라가자 앞이 탁 띄었다.
- ④ 비가 와서 마당에 빗물이 띄었다.
- ⑤ 잠든 아기를 침대에 뉘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빛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理性)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배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 오세영, 「그릇 1」 -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④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⑥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砂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다)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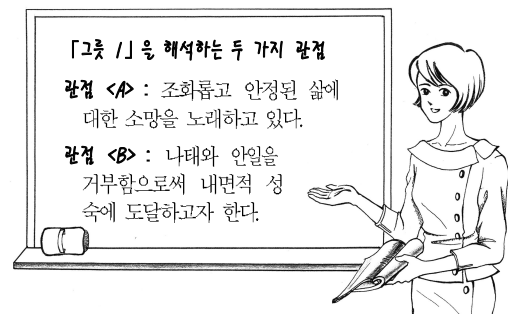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떠다.
첨피기육(瞻彼淇澳)혼대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닥대 하나 빌려사라.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④남재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토리 업슬산 다문 인가 너기로다.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난
㉣두세 이렇 빛논를 다 무겨 더져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인간(人間) 어내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난
내 생애(生涯) 이리호대 설운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애난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하 리 닐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 상황 인식을 노래하고 있다.

14. 다음을 참고하여 (가)의 시어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시어	관점	해석
칼날	<A>	삶의 시련이나 위협에 대항하려는 자세 ...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힘
절제와 균형	<A>	평화롭고 안락한 긍정적인 세계 ...②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③
깨진 그릇	<A>	안정적인 조화가 무너진 세계 ...④
		안일한 현실이 깨뜨려진 상태 ...⑤

15.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어미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한자어와 관념어를 사용해 생경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16. (가)와 (나)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는 사회적, 역사적 삶의 주체이다.
- ② (나)의 '나'는 근원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 ③ (가)의 '나'는 (나)의 '나'와 달리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 ④ (나)의 '나'는 (가)의 '나'와 달리 허무 의식과 달관의 경지를 보여준다.
- ⑤ (가)와 (나)의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누항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박인로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생활하던 중에, 한음 이덕형(李德馨)이 찾아와 그에게 두메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누항사」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에서 오는 고뇌와 괴로움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태도로 체념적 심회를 읊기도 하지만,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의지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학자로서 실천해야 할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생동감을 획득하는 데 탁월함을 보이고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조선시대의 전기 가사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에는 궁핍한 생활로 인한 작가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작가의 소망이 나타난다.
- ③ ㉢에는 현실에 순응하고자 하는 작가의 운명론적 태도가 담겨있다.
- ④ ㉣에서 생활과 밀접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에서 작가의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해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② ㉡: 극한적 상황에서 치열한 성찰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 ③ ㉢: 죽음의 표상으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 자연은 소유(所有)의 대상이 아니라는 작가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나타낸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 일련의 주기가 있듯이, 시장에 도입된 제품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점차 시장에서 쇠퇴하여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를 '제품수명주기'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된다.

도입기는 개발 과정을 거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시작되는 시기로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매출은 느리게 성장한다.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판매 이익보다 생산원가와 유통비가 높고, 판매 촉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제품의 매출과 이익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면 신제품은 시장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업은 잠재 고객을 위한 판매 촉진 행사를 늘리고,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전략으로 이익을 높이려고 한다.

성장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의 구매로 매출이 급증하여 이익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시기이다. 구매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판매 촉진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구매가 늘면 이는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 제조 단가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익기회에 매료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이익에 대한 경쟁이 뜨거워진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품질 개선, 새로운 모델 개발, 매출 확대를 위한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이익을 더 높이려고 한다. 또한 장기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망도 보충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업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성장 후기로 접어들게 되고, 기업은 이때를 신제품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성숙기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더 이상 없고 주로 대체 수요나 반복 수요만 이루어져, 전 단계에 비해 이익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높이려고 하지만 경쟁사의 제품도 다양해져서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의 추가나 디자인 개선 등의 심리적 차별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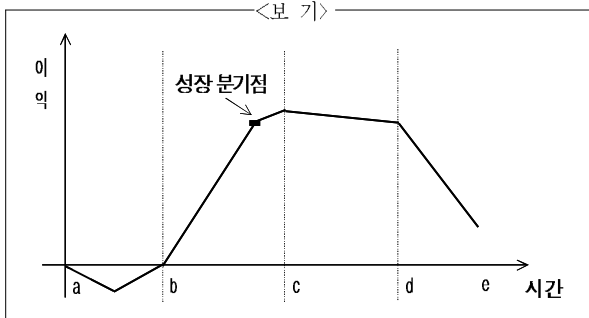
쇠퇴기에는 제품이 시장성을 잃어감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기업들 중에는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팔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리는 기업도 있고, 제품에 대한 강한 구매욕을 가진 고객이 남아 있으면 그 종류를 단순화하여 이익을 유지하려는 기업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면 성장 전후기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간이 바로 기업을 퇴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과정인 셈이다.

19. 위 글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려고 한다.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품의 기능 변화에 따른 판매 전략
- ② 경기 변동에 따른 이익 증대 전략 분석
- ③ 매출과 이익의 증감에 따른 기업의 생존 전략
- ④ 제품의 이익률 신장을 위한 기업 간 전략 분석
- ⑤ 판매 규모와 고객의 참여에 따른 기업의 생존 전략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b 구간에서는 제품에 대한 광고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 ② b~c 구간에서는 경쟁 속에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③ b~c 구간의 '성장 분기점'에서는 신상품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 ④ c~d 구간에서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한다.
- ⑤ d~e 구간에서는 제품을 계속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1. <보기>는 화장품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다. 위 글에 비추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무료 견본이나 쿠폰을 배포하여 제품 홍보에 집중한다.
 ㄴ. 기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ㄷ. 경쟁사가 점유하지 못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 판매를 실시해 장기적인 유통망을 보충한다.
 ㄹ. 경쟁사와 다르게 제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디자인을 개발한다.
 ㅁ. 수익성이 가장 떨어지는 상품만을 선택해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 ① ㄱ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겠군.
- ② ㄴ은 경쟁사가 많이 늘어나자 취한 방안이겠군.
- ③ ㄷ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판매 촉진 전략이겠군.
- ④ ㄹ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차별화로 고객에게 다가가려는 전략이겠군.
- ⑤ ㅁ은 시장성을 잃어가는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겠군.

22.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일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
- ② 오랜 노력으로 그의 야구 실력은 완숙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③ 그녀는 도서관에 이르러서야 친구와의 약속이 생각났다.
- ④ 정부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⑤ 그는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도착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증산층 가정 주부인 '혜자'는 인형 제작자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녀는 지하실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기척 없이 침입한 사내를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다. 그녀는 정당방위로 풀려나지만, 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2년 동안 정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퇴원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혼자 기거한다. 그녀는 텅 빈 집 안에서 수첩을 발견하고 대학 동창들과 인형 제작자인 민 선생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마치 자신의 운을 걸고 마지막 패를 던지는 도박꾼처럼 비장한 심사가 되어 다섯 번째로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가 떨어지고 여보세요, 응답하는 목소리에서 곧장 정옥의 얼굴을 떠올리며 혜자는 짐짓 느릿느릿 말했다. 정옥이? 나 혜자야. 어머, 어머. 뜻이 분명치 않은 감탄사의 되풀이에 이어 말이 끊겼다. 죽은 사람에게서 온 전화라도 받은 듯 질린 기색이 역력히 전해졌다. 오랜만이구나. 정말 그래. 건강은 어떠냐? 그녀의 말을 받으며 정옥이 허둥지둥 덧붙였다. 어디 있니? 집이야, 집에 왔어. 다른 친구들 잘 있지? 통 연락이 안 되는구나. 그럴 거야. 이사를 많이 했어.

만나고 싶다는 혜자의 말에 정옥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대답했다. 마침 잘됐어. 봉선이가 남편 따라 외국으로 가게 되어 송별회를 해 주기로 했어. 7시야, 광고 K빌딩 13층 스카이라운지 알지? 거기야. 모두들 널 보면 반가워할 거야.

(중략)

시계달의 전자 시계는 일곱 시 이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인 일곱 시에서 이십 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아는 얼굴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창가에서는 시계달이 맞바라다보여 일 초 일 초 흐르는 시간을 헤아릴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이 한결 명료해지고 도시의 불빛은 깊고 현란하게 돌아났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십 분이 지났다. 한산하던 실내는 거의 차다시피 했고 그녀는 출입문이 여닫힐 때마다 긴장한 눈길을 보냈다. 혹시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첫눈에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모습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밖의 어둠을 배면으로 해서 유리창에 음화상처럼 찍힌 얼굴은 자신이 보기에도 낯설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녀의 일을 잊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녀는 규칙적인 투약과 주사, 간단없이 찾아드는 나락과 같은 수면과 허기증으로 살을 찌우며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켰고 머리털은 회백색으로 길게 자랐다. 병실을 함께 쓰던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을 훔쳐 갔다고 어거지를 쓰며 느닷없이 그녀의 머리털을 뜯을 때까지, 상대방의 손에 한 움큼 뽑힌 회백색 머리털이 자신의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혜자는 출입문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진토닉을 한 잔 시켰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유리로 밀폐되고 난방이 잘 된 실내는 역시 더웠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답답하게 죄는 목과 가슴의 단추를 살며시 풀어 놓았다.

얼음을 가득 채운 투명한 유리컵에 얇게 저민 레몬 한 조각과 붉은 체리가 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시큼하고 짭은 맛이 나는 냉수에 지나지 않았다.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는 서양 속담은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고 생각하며 점점 작아져 컵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얼음 조각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얼음은 금시 녹아버리고 레몬의 맛은 속임수처럼 줄어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이 오리라는 희망 또한 줄어들어 갔다. 아홉 시가

남자 그녀는 웨이터에게 ㉠ 또 한 잔의 진토닉을 주문했으며 비로소 자신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잘못 안 것이 아닌가 하는 실제적인 의혹에 사로잡혔다. 혹시 내일, 또는 모레로 정해진 날짜를, 오직 나가고자 하는 그녀의 절박한 갈망이 임의로 오늘이라 속삭인 것이 아닐까. 점점 작아지는 얼음 조각들이 달그락 소리로 부딪치다가 흔적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었다. 열 시가 되어 ㉡ 또 한 잔의 진토닉을 주문했을 때 젊은 웨이터는 넓고 흰 것을 목둘레에 부챗살처럼 두르고 강철처럼 뻗뻗하고 윤기 없는 회백색 긴 머리털을 늘인, 몹시 비대한 여자를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이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고 그녀는 심한 노여움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모임에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는 몰래 장소를 옮겼음에 틀림없었다. 이 부근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앉아 유리창을 통해 환히 보이는, 기다림에 지친 그녀를 손짓하며 끝없이 수군댈 것이다. 글썽 개가 전화를 했지 뭐니? 너희들에게도 다 전화를 했었다. 웅케 피했구나……. 남자는 죽고 그 앤 풀려났지만 그럼 뭘 하니, 폐인이 다 된 걸. 실제로 컷전에서 울리는 소리에 헤자는 귀를 틀어막았다. 아무리 정당방위라지만……. 어쨌든……. 그랬으니까. 이혼했는지? 그럴 거야. 어떻게 같이 살겠어, 무서워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열걸에 자기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공포 때문이었을 거야. 후에 개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걸 봐도 알지. 남들의 얘기 속에서는 죽은 것은 언제나 도둑이 아닌, 남자였다. 남편도 그랬었다. 뒤편가 자꾸 알아내고 싶어했다. 그가 단순히 낮털이 도둑인가, 전부터 알던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나치며 낮이 익은 사내는 아닌가를 교묘히 우회하며, 그러나 집요하게 캐물었다. 제발 날 내버려 뒀요.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생각으로는 수천 번 이상 했었던 말을 되풀이하며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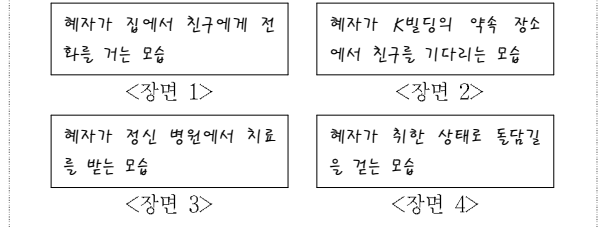
몸의 곳곳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취기에 흔들리며 헤자는 걸었다. 무너진 돌 틈에 숨은 연젠가 맺은 비밀의 약속, 사랑의 맹세를 찾듯 한 손으로 돌담을 쓸며 똑바로 앞을 보고 걸었다. 모두들 잊었다고,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그녀의 컷전에서 웅웅 속삭였다. 돌담길, 꿈에는 그리도 익숙하게 자주 가는 길, 길이 끝나는 곳에는 꿈 깨인 쓸쓸한 현실이 있을 뿐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면서도 헤자는 꽃처럼 피어나는 취기가 영원히 그 길을 이어 주리라는 기대로 더 깊은 어둠을 향해 한 걸음씩 옮겨 놓았다.

- 오정희, 「순례자의 노래」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배경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 다음은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선정한 주요 장면이다. 각 장면에 대해 의논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장면 3> → <장면 1> → <장면 2> → <장면 4>’가 되겠다.
- ② <장면 1>에서는 친구의 목소리를 밝게 처리하여 반가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 ③ <장면 2>에서는 출입문을 자주 바라보며 친구를 기다리는 헤자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야겠다.
- ④ <장면 3>에서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살이 찌고 머리가 회백색으로 변한 헤자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 ⑤ <장면 4>에서는 배우에게 헤자의 복잡 미묘한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야겠다.

25. ㉠~㉢에 나타나는 헤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
①	초조	-	체념	-	자책
②	초조	-	불안	-	분노
③	긴장	-	불안	-	자책
④	긴장	-	실망	-	자책
⑤	긴장	-	체념	-	분노

26.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을 감상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순례자의 노래」는 ‘헤자’라는 인물이 집을 떠나 밖으로의 일탈을 시도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전체에서의 공간 이동을 살펴보면, ‘㉠집 → 지하도 → 남편회사 → ㉡K빌딩 13층 → 거리 → 포장마차 → ㉢돌담길’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헤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주인공은 ㉠에서 느꼈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 ② 주인공은 ㉡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 ③ 주인공은 ㉢에서 상상과 회상을 통해 주변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주인공이 ㉢을 걷는 행위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주인공이 ㉠에서 ㉢까지 이동하는 것은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는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기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미(美)에 대해 정의해 왔고, 덕분에 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醜)에 관해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인들의 눈에 험상궂고 섬뜩해 보이는 아프리카의 제의용 가면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신의 형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미와 추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는 미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추에 관해 연구한 에코는 최근 이렇게 미와 전주어 추로 분류되는 전형적 이미지를 ‘그 자체로의 추’와 ‘형식적 추’로 나누었다.

에코에 따르면, 배설물이나 부패해 가는 고기, 썩은 과일 등은 감정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그 자체로의 추’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가 거의 다 빠진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배설물을 보는 것과 같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얼굴의 불완전성, 즉 꼭 있어야 할 나머지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에코는 이런 경우를 유기적 관계에서 비례와 균형의 결여로 인해 나타나는 ‘형식적 추’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추함을 능숙하게 표현함으로써 훌륭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코는 이런 경우를 ‘추의 예술적 묘사’라고 정의하였으며, 예술가의 재능 부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형편없이 그려진 그림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추’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에코가 제시한 이 추의 구분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당시 대중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때로 온전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추하게 변형해 예술성을 획득하려 하거나, 그 자체로의 추와 형식적 추를 예술적으로 재현해 ‘추의 예술적 묘사’를 추구했지만, 당시 대중은 그들의 작품을 그저 실력이 부족한 예술가들에 의한 ‘예술적 추’의 사례로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대중에게 아방가르드 작품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추의 묘사’가 아니라, 전혀 추하지 않은 현실의 ㉡‘추한 묘사’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부르주아들이나 일부 상가들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현대 예술의 퇴보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 다수에게 아방가르드 예술계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은 그 당시 의도적으로 형태의 해체를 추구하면서 피기스럽고 혐오스러운 아프리카의 가면 등에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을 찾았다. 또한 다다이즘도 피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호소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다다이즘의 대표 주자인 뒤샹은 소변기를 예술작품으로 선보이거나, 「모나리자」에 도발적으로 콧수염을 그려 넣은 「L. H. O. O. Q」를 발표하는 등 뭔가 꼴사나운 것을 예술의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이후 초현실주의로 이어져, 달리나 마그리트의 작품처럼 피기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렇듯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미뿐만 아니라 추도 예술의 일부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 아방가르드: 기성의 예술 관념과 형식을 부정한,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20세기 초 유럽의 다다이즘,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화가 다르면 미와 추의 구분도 다를 수 있다.
- ② 미래의 예술은 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를 예술의 표현 대상에 포함시켰다.
- ④ 다다이즘의 예술적 성향은 초현실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 ⑤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28. 위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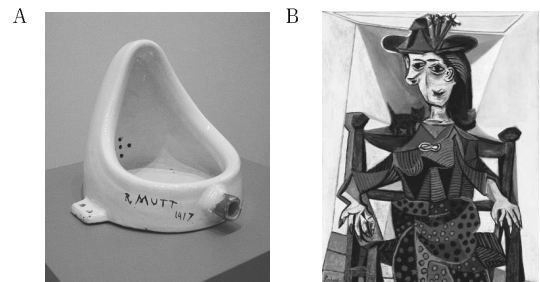
<보 기>

- ㄱ. 차이점을 부각하여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 ㄷ. 어원의 유래를 밝혀 특정 개념의 변화 과정을 말하고 있다.
- ㄹ. 낯선 개념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마르셀 뒤샹, <샘>

파블로 피카소, <도라 마르의 초상화>

- ① A는 배설물을 연상하게 하므로 ‘그 자체로의 추’와 관련이 깊군.
- ② B에서는 비례와 균형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추’를 느낄 수가 있군.
- ③ B에 대한 20세기 초 대중의 평가와 오늘날 대중의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겠군.
- ④ 20세기 초 부르주아들은 A보다 B가 예술적으로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았겠군.
- ⑤ A, B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감상자는 두 작품 모두 예술가가 의도한 결과라고 생각했겠군.

30. 다음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 ㉡의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의 묘사	↔	㉡추한 묘사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입장		20세기 초 대중 다수의 입장 ..①
미와 추의 구분은 절대적임		미와 추의 구분은 상대적임 ..②
예술의 대상으로 추를 수용		예술의 대상으로 추를 거부 ..③
아방가르드 작품은 예술성의 획득		아방가르드 작품은 예술성의 퇴보 ..④
아방가르드 예술은 '추의 예술적 묘사'		아방가르드 예술은 '예술적 추'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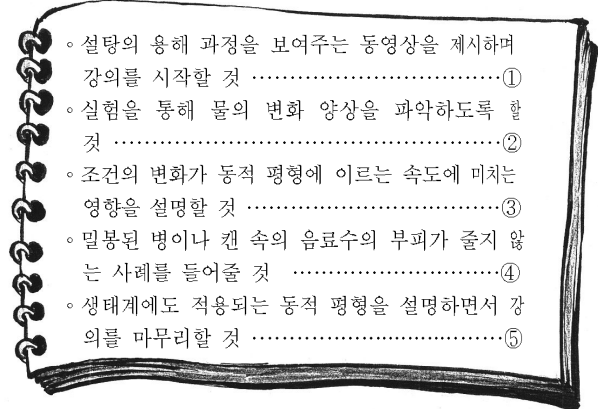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정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설탕을 계속 부었을 때, 처음에는 설탕이 잘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탕은 계속 녹고 있다. 다만 결정(結晶) 상태에서 용해된 상태로 변화하는 설탕의 양이, 용해된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변화하는 설탕의 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처럼 미시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한 방향의 변화량과 반대 방향의 변화량이 거의 일치하여 거시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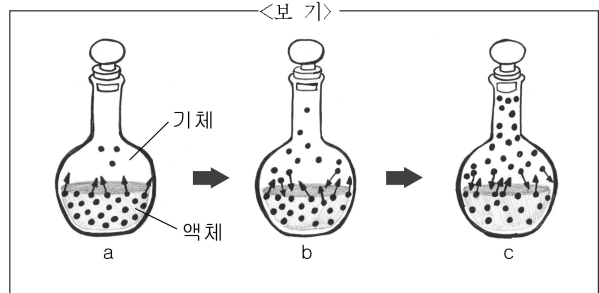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동적 평형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습도 100%의 포화 상태에서는 물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동적 평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증발량과 응결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물이 담긴 그릇에 뚜껑을 덮어둔다면, 물의 양이 처음에는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즉, 처음에는 뚜껑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증발이 일어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증발된 분자는 뚜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뚜껑 속 액체 위의 공간에 존재하다가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증발량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 중 일부는 액체 표면에 충돌, 다시 응결되어 액체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때 처음에는 응결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커서 액체 표면 위에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응결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게 되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되는 분자 수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 분자 수가 거의 같게 된다. 이러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밀봉된 병이나 캔 속의 음료수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더 나아가 생태계 에너지 피라미드가 균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각 단계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유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거의 일치하는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다음은 위 글을 토대로 강의하기 위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기 시작한다.
- ② b에서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편 응결 또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
- ③ a에서 b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응결이 시작됨과 동시에 물의 양은 다시 증가한다.
- ④ b에서 c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증발량은 점차 줄어들고 응결량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 ⑤ c는 증발량과 응결량이 거의 일치하여 기체가 되는 분자 수와 액체가 되는 분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33.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돌로 된 판 위에 고기를 얹어 놓고 장시간 돌판을 가열했을 때, 고기는 원래의 색과 모양을 잃어버린다.
- ② 외부의 어떠한 조건의 변화 없이 양팔저울에 같은 질량의 물체를 놓았을 때, 두 물체의 무게는 일정하다.
- ③ 외부 공기가 차단된 용기에 나프탈렌을 넣으면 처음에는 크기가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게 유지된다.
- ④ 막대 하나를 양 손에 힘을 주어 부러뜨렸을 때, 조건이 같은 막대 여러 개를 묶어 양 손에 힘을 주면 부러지지 않는다.
- ⑤ 해변에 쌓아 올린 모래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을 잃어버려 한 번 허물어지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락 줄거리] 세 마을에 걸쳐 며칠 동안 용마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용마가 울면 마을에 그 용마의 주인이며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 때문에 관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차출하여 포졸들과 함께 용마를 잡으려 한다. 그리고 그때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방안에서 기척이 난다

아 내 깨었나?
(돌아 들어가서 문을 연다)

아 내 ㉠아이그머니!

영당방아를 쫓으며 마당으로 굴러 떨어진다 / 와들와들 떨면서 방안을 들어다본다 / 열린 문으로 방안을 걸어다니는 애기가 보인다 (인형) / 팔을 활짝 벌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아 내 아이구, 이걸, 어찌누, 아이구, 어찌면, 좋아
(얇은 채 영금영금 기어서 문턱을 잡고)

아 내 아이구, 아가야, 아이구, 아가야

애 기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 메아리처럼) ㉡못 참겠다!

아 내 아이구

애 기 (메아리처럼) 못 참겠다

아 내 안 된다, 아가야, 안 된다

조명, 쉼없는 빛, 핏빛처럼, 이윽고 핏빛 조명 스러지고 병어리처럼 손짓 발짓 하며, 허리를 펴고 일어선지도 못하는 아내 / 방안에서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애기 / 아내, 가서 방 문고리 건다

[중략 줄거리] 용마를 잡으려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애기가 범상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기를 씻었조 자루로 눌러 죽인다. 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이 나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남 편 ㉢여, 여, 여, 여보

아내를 붙들고 혼든다 / 이윽고 아내 곁에 주저앉아버린다 / 무릎 사이에 고개가 파묻혔다 / 사이 / 일어나다 / 끌려낸 띠를 대들보에 건다 / 말이 우는 소리, 사립문 쪽에서 용마를 탄 애기 (말, 애기 모두 인형, 추상적인 구조의), 마당으로 들어온다 / 무대, 감감해지고, 각각, 말과 애기, 남편의 머리 위로 비추는 부분 조명 및 방안에 누운 아내의 위에서 비추는 조명

남 편 (마당에 내려서다가, 용마와 애기를 보고 주저앉으며)

㉣너, 너, 너, 너를 무, 무, 무, 무, 무, 묻고 오, 오, 오, 오
는 김인테

애 기 (고개를 저으면서, ㉤들고 있던 진달래꽃 묶음을 아버지한테 준다)

남 편 (꿈결처럼 걸어가서 받는다)

애 기 엄마, 엄마!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

남 편 (방으로 들어가 ㉥꽃묶음을 아내 가슴에 얹는다) 여, 여, 여보, 다, 다, 당신, 애, 애, 애, 애기가, 가, 가, 가, 가져왔소, 다, 다, 다, 당신 애, 애, 애기가, 사, 사, 사, 사, 살아왔소

아 내 ((인형) 꽃묶음을, 들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선다
아내, 애기한테로 걸어가서 애기를 끌어안는다)

애 기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 엄마, 아빠, 빨리 타요

남 편 (아내를 말에 태우면서) 자, 자, 자, 자, 가, 가거라, 어, 어, 어-어-어, 어, 어서 가거라, 사, 사, 사, 사, 사람들이 오, 오, 오, 오, 올라. 네, 네, 네, 네, 네가 주, 주, 주, 죽었다고 해, 해, 해, 해, 했으니 마, 마, 마, 마, 마을 사람들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올게다

애 기 (손짓하면서)

아 내 빨리, 빨리, 포졸들이, 와요

남 편 (소매로 눈물을 씻으면서) 오, 오, 오, 오냐

끝내 타지는 않고 / 용마의 고삐를 잡고 사립문을 나간다 / 무대, 다시 밝아진다 / 빈 무대 / 마을 사람들 여럿과 포졸들 여럿 들어선다

마을사람 1 여보게

포졸 하나, 다짜고짜로 문고리를 나꿔챈다

포졸 1 어딜 갔나?

포졸 2 ㉦분명하겠지?

마을사람 1 예, 경기를, 일으켜서, 간밤에

포졸 3 흠

마을사람 1 산에, 가져다, 묻고 오는, 길이라더군요

마을사람 2 저것 보게, 저기

사람들 아니, 저 세 식구가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군 ㉧꽃을 던지는군 가거든 옥황상제께 여쭙주게 우리 마을에 다시는 장수를 보내지 말시사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자 /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 애기 착한 애기

사람들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밭에서 새를 쫓는 시늉을 하며)

하늘에서 젓 안 먹고 크는 애기……

사람들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사람들, 어느덧 손짓 발짓 장단 맞춰 춤을 추며, 어갯짓 고갯짓 곁들여, 굿, 춤추듯, 농악 맞춰 추듯, 춤을 추며

하늘에서 …… 보채면서 자란 애기 흥년 들면……

사람들 휘어이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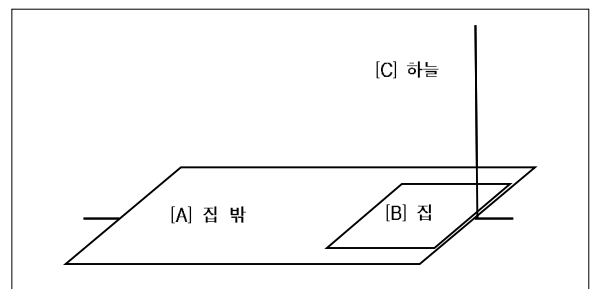
점점 신명이 난 / 하늘과 땅이 /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 천천히

-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

34. 연출가가 배우에게 ㉠~㉥에 대해 조언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갓 태어난 ‘애기’가 걸어다니는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된다. 그 감정이 표현되도록 대사를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 ② ㉡ : 방에만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 주세요.
- ③ ㉢ :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도록 하세요.
- ④ ㉣ : 자신이 묻었다고 생각하는 ‘애기’가 살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 ⑤ ㉥ : 마을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탈함이 느껴지도록 연기해 주세요.

35. 다음은 위 글의 공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무대 배경은 [B]이다.
- ② [A]의 상황이 [B]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다.
- ③ 관가 포졸들의 포위망이 [A]에서 [B]로 점차 좁혀진다.
- ④ [C]의 소망으로 인해 [A]와 [B]의 갈등이 시작된다.
- ⑤ ‘애기’의 가족은 [A], [B]의 수평적 공간을 벗어나서 [C]라는 공간으로 수직 이동한다.

36.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인훈은 자신의 회곡에 설화의 세계를 도입하여 우리의 설화를 민족적 특수성에서 세계적 보편성으로 확대하고자 했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절대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인 언어와 사유(思惟)를 소유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냈다.

최인훈 회곡의 주된 특징으로 우리의 전통 민속극을 이어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인훈은 비극적인 요소를 비장미로 표현하지 않고 가슴 속의 응어리를 집단적 신명의 춤과 놀이로 풀어냈다. 그리고 인물의 인형화, 효과음의 이질성, 의인화 등의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극작술을 보여주었다.

- ① 전설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 의식을 보여준 것이군.
- ② 남편을 말대듬이로 설정하여 억압받는 백성임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마지막 장면은 꿈이 좌절된 아픔을 신명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전통 민속극과 관련이 있는 것이군.
- ④ ‘애기’ 장수가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민족의 특수성이 세계적 보편성으로 확대된 것이군.
- ⑤ 인형으로 표현된 인물들과 확성기에서 나오는 ‘애기’의 목소리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 적용된 것이군.

37. <보기>는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통해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진달래꽃은 우리 민중의 한을 표상하는 동시에 절망을 응시하고 서러운 죽음을 위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사자(死者)의 부활을 기원하는 의식에도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진달래꽃이 봄의 시작을 말해 주는 꽃으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달래꽃은 부처가 지나가는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산화공덕(散花功德)이라는 점에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① ㉠에는 자신을 죽인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죽은 아내가 부활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 있어.
- ③ ㉢은 아내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 한을 달래고자 함이군.
- ④ ㉣은 지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네.
- ⑤ ㉤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 영웅으로 남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 주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정 박제가는 신분상의 차별이 엄격하던 조선 후기에 서얼로 태어났지만 국왕 정조에 의해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경세관을 펴려하였다.

“저 놀고먹는 자들은 나라의 큰 좀벌레입니다. 놀고 먹는 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사족(士族)이 날로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라에 온통 깔려 있어서 한 가닥 벼슬로는 모두 읊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처리할 방법이 반드시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근거 없는 소문을 날조하는 무리가 사라지고 국가의 통치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신은 수륙의 교통요지에서 장사하고 무역하는 일을 사족에게 허락하여 입적(入籍)할 것을 요청합니다. 밀전을 마련하여 빌려주기도 하고, 점포를 설치하여 장사하게 하고, 그 중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자는 벼슬에 발탁하여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점차로 놀고 먹는 추세를 줄이고, 그 직업을 즐겨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여, 그들이 가진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태를 바꾸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중략)

의의(疑義)*라는 과거시험의 술에 간혀 움썹달싹하지 못하고 변려문의 길에서 기운을 다 소진하고 나서는 천하의 책을 몽땅 묶어 두어 “불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공령문(功令文) 짓는 자들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사촌간의 친지를 노비로 부리는 자가 있고, 머리가 허영고 김버섯이 돋은 노인이 머리 땀은 아이들의 아랫자리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향렬의 어른에게 절을 하기는커녕 손자뻘 조카뻘 되는 자가 어른을 꾸짖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쭐대며 천하를 야만족이라 무시하며 자기야말로 예의를 지켜 중화(中華)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우리 풍속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대부는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법이 사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것이 자기를 피폐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科擧)란 인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재의 선택이 과거로 인해 망가지니 이것이 자기를 피폐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원을 설립하여 선현(先賢)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를 숭상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역에서 도망하는 장정과 금주를 빚는 자들이 숨어 지내는 소굴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를 피폐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박제가의 「병오소회(丙午所懷)」는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고루한 문벌의식과 화이관(華夷觀)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의 주장을 용납할 리 만무했다. 두터운 수구세력의 벽을 넘기에 ㉡박제가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조선은 사회의 기득권인 사족층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박제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 의의(疑義) : 경서의 구절을 해설하고 논리를 세우는 시험 문제

38. 박제가가 파악하고 있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족들이 사치 풍속에 젖어 가고 있다.
- ② 반인륜적인 적서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 ③ 무위도식하는 사족들이 늘어 가고 있다.
- ④ 서원이 군역기와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⑤ 과거가 인제 선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39.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사족들에게 장사 밀전을 빌려 준다.
- ② 사족들을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시킨다.
- ③ 사족들의 권한을 상인들에게 이양시킨다.
- ④ 사족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다.
- ⑤ 사족들 중 상업을 잘한 자에게 벼슬을 준다.

40. ㉡을 가장 잘 형상화한 시어는?

겨울바람은 확확	風吹吹
대추나무는 흔들흔들	棗搖搖
겨울 한양성엔 나무들 우뚝하고	寒城帶喬木
넓은 들엔 하늘마저 쓸쓸하고 고요하네	野曠天寂寥
눈 돌려보니 산 모퉁이에 잔설이 남았는데	回看山際雪嵯峨
종이연은 태양을 등지고 구름 속에서 나무끼네	鷲尾背日輕雲飄

- ① 겨울바람 ② 한양성 ③ 넓은 들
- ④ 잔설 ⑤ 종이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를 인식하고 주변 사물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심적 표상인 영상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영상도식(image schema)이라 한다. 영상도식은 구체적인 신체 경험과 관련해서 형성되는 심적 표상의 일종이자 인지 구조로, 언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기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영상도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분-전체 도식’은 부분과 전체의 구조로 이루어진 도식으로서, 전체는 긍정적이며 부분은 부정적이다. 우리 몸은 신체 각 부분이 합쳐진 ‘전체’이기에 자연스럽게 전체를 부분보다 중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언어 표현은 전체를 지향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비해 ‘파산하다’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중심-주변 도식’은 중심과 주변의 구조로 이루어진 도식으로서, 중심은 긍정적이며 주변은 부정적이다. 신체의 중심부에 입은 상처는 주변부의 상처보다 치명적이기에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중앙부서’라는 언어 표현은 중심을 지향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연결 도식’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도식으로서, 연결은 긍정적이며 분리는 부정적이다. 이 도식의 일차적 신체 경험은 어머니의 땃줄에서 시작된다. 땃줄의 ‘연결’은 생명 에너지의 공급과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분리’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지될 수

있다. 고려가요 「정식가」 가운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잇가?’라는 표현에서 ‘연결’을 지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릇 도식’은 ‘안’, ‘밖’의 구조로 이루어진 도식으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릇으로서 몸’ 도식은 자기의 몸을 하나의 그릇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한다면 내 몸이 그릇이 되고, 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이 된다. 한편, ㉡‘그릇 속의 몸’ 도식은 자기의 몸을 그릇 속의 내용물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마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용과 균형을 긍정적인 것으로, 지나침과 불균형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균형도식’과,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등의 방향과 관련된 ‘방향도식’이 있다. ‘위, 앞, 오른쪽’은 긍정적이며, ‘아래, 뒤, 왼쪽’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의미의 문제를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의하는 입장과는 달리 의미를 신체 경험과 관련지어 체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영상도식인 것이다. 그러나 영상도식과 같은 인지모형은 문화 의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들 간에 개념적 의미가 같은 단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포적 의미까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41. 다음은 위 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이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 목적 : 언어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 내용 선정 : 언어에 담긴 인지 구조를 잘 보여주는 이론을 선정한다. ①

○ 자료 수집 : 이론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수집한다. ②

○ 내용 전개
가. 관련 항목을 나열하여 체계성을 갖춘다. ③
나.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④
다. 학술용어를 사용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살린다. ⑤

4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a~d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a. 나는 감기에 걸려 주사를 맞았다.
- b.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 c. 나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 몸담고 있다.
- d. 나는 우리 학교 재즈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다.

	㉠	㉡
①	a, b	c, d
②	a, c	b, d
③	b, c	a, d
④	b, d	a, c
⑤	c, d	a, b

43.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지나침을 경계하는 말이므로, 균형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② 백년가약(百年佳約)은 인연의 맺어짐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연결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③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위와 아래라는 방향을 통해 성립되는 말이므로, 방향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본말전도(本末顛倒)는 중심과 주변의 뒤바뀜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중심-주변 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지니는 말이므로, 부분-전체 도식과 관련이 있겠군.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에 일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발생하거나, 전기를 흘려주었을 때 물체의 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압전효과라고 하고 이 효과가 나타나는 물체를 압전체라고 한다. 압전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는 압전체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압전체 내부에는 한쪽에 양전기, 반대쪽에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dipole)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쌍극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일정하게 정렬하여 압전체의 한쪽은 양(+)극성을, 다른 한쪽은 음(-)극성을 띠고 있다.

압전효과는 크게 ①정(正)압전효과와 ②역(逆)압전효과로 나눌 수 있다. 가스렌지에 불을 켜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거나 누르면 손잡이 안쪽 압전 점화기에 압력이 가해져 전기스파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압전체에 압력, 진동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정압전효과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압전체가 들어간 가습기의 초음파진동기는 전기를 흘려주면 아주 빠르게 진동하면서 물을 잘게 부수어 수증기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압전체에 전기를 가하면 압력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역압전효과라 한다.

정압전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압전체를 위아래로 당겨서 늘리면 쌍극자의 양전기와 음전기 사이의 간격이 원래보다 벌어져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 전위차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또한 압전체를 눌러서 찌그러뜨릴 때는 늘렸을 때와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역압전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압전체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하면, 쌍극자의 양전기와 음전기가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압전체가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쌍극자의 양전기와 음전기가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도망가려 해 압전체가 줄어든다.

최근 압전효과를 활용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압전효과가 적용된 압전체 발전기를 이용하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역압전효과가 적용된 압전 모터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압전체 발전기를 이용한 기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나 배터리가 없이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바람, 사람의 움직임, 떨림 등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나노 로봇이나 나노 센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에 널리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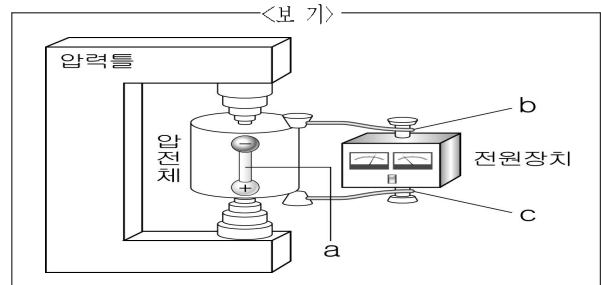
압전 모터를 이용한 기술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기어가 필요 없이 압전체의 진동만을 이용하기 때

문에 기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카메라의 오토포커싱 장치와 손떨림방지 장치 등 정밀한 움직임과 미세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곳에 널리 쓰일 수 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발생한 후에 ㉡이 발생한다.
- ② ㉠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쌍극자에 의해 발생한다.
- ③ ㉠은 압전체에 가해지는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 ④ ㉡은 전기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⑤ ㉡은 주변의 여러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해 준다.

45.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압전체의 내부에는 쌍극자인 a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 ② 압전체를 늘리면 위와 아래의 전위차로 인하여 전류가 발생한다.
- ③ 압전체를 누르면 압전체를 늘릴 때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 ④ b에 양극(+), c에 음극(-)의 전류를 흘려주면 전체적으로 압전체는 늘어난다.
- ⑤ b에 음극(-), c에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면 쌍극자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각각 위와 아래로 끌려간다.

46. 다음은 압전효과를 이용한 사례들이다. 사용된 압전효과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필름형 스티커	유연하고 쉽게 휘어지는 플라스틱 폴리머에 전기를 흘려주면 압전체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낸다.
② 초소형 혈당센서	혈관 속에 있는 센서의 압전체에 혈액의 흐름에 의한 압력이 전해지면 전기가 발생되어 센서가 작동한다.
③ 파워 셔츠	두 가닥의 압전체 나노선을 꼬아 움직일 때마다 나노선이 서로 비벼대면 전기가 발생되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에어백 센서	압전체를 아주 잘 휘 수 있도록 얇게 만들면 충돌 사고 시 변형이 일어나 전기가 발생한다. 이를 센서가 감지해 에어백을 터뜨린다.
⑤ 서명 판독기	서명판 아래에 압전체 가닥을 격자로 놓아 서명할 때의 압력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기록, 그 패턴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화옥의 심부인, 오부인, 정부인은 각각 큰아들 화춘, 딸 태강소저, 작은아들 화진을 낳았다. 화옥은 용렬한 화춘보다 영특한 화진을 편애하여 심부인과 화춘의 불만을 산다. 화옥, 오부인, 정부인이 죽게 되자, 심부인과 화춘은 갖은 방법으로 화진과 화진의 아내 윤부인, 남부인을 학대한다. 화춘은 조씨를 정실로 들이는 것에 반대한 화진에게 심부인을 죽이려했다는 누명을 씌워 하옥시키고, 뛰어난 자색은 없으나 덕성이 있는 정실 임소저를 내치고 첩인 조씨를 정실로 들인다.

하루는 조씨가 느닷없이 비춘정에 들이닥쳤다. 마침 남부인이 자리에 있었다. 조씨가 윤부인에게 말했다.

“이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귀중한 보배 두 가지가 있대지요? 집안일을 맡아 하는 며느리에게 준다고 하더이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며느리 임씨는 자질이 부족하여 주시지 않으셨고, 백화헌 상자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두 아우님께 나누어 주셨다더군요. 그대들은 둘째 며느리인데 외람되게도 종가의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명분에도 어긋나고 가문의 기강도 무너질 일입니다. 임씨가 인륜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바른 도리를 논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 집안도 평온해졌고 질서도 잡혔으니 적자와 서자의 분별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은 이제 부인들과는 상관이 없지요.”

윤부인이 다 듣고 나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그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보물 이름이 무엇이라던가요?”

“하나는 홍옥패인데 할아버지이신 동구후께서 금릉을 치실 때 순성마황후 고부인께서 주신 거라더군요. 다른 하나는 청옥패인데 고조 되시는 동국공께서 남방을 평정하실 때에 교지왕이 폐물(弊物)로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귀한 보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끼고 보호하며 반드시 덕이 있고 공경을 갖춘 며느리에게 전해 주기로 했다더군요. ㉔우리 시어머님께서도 덕과 공경을 아름답게 갖춘 분인데, 옥패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옥패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대들의 차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잘못입니까? 어찌 안타깝지 않겠어요?”

윤부인은 즉시 상자를 열고 꺼내 주었다.

㉕“밝으신 가르침이 마땅합니다.”

조씨는 옥패를 손에 들고 두세 번 만지더니 얼굴에 기쁜 기색이 가득했다. 남부인은 정색을 하고 단정히 앉아 묵묵히 말이 없었다. 끝내 옥패를 내어 줄 뜻이 없었던 것이다. 조씨는 화가 나서 분을 머금고 가 버렸다. 남부인이 윤부인에게 말했다.

㉖“두 개의 옥은 우리가 받은 신물입니다. 어찌 군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까?”

윤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군자께서도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일로 심려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옥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조씨가 정당에서 왈차지결하게 임소저의 허물을 말하고 있었다. 윤부인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지만, 남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정색하여 말했다.

“남자는 장부의 총애만 믿고 말씀이 무례하십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난초에 불이 붙으면 같은 식물인 헤초도 슬퍼하고, 토끼가 죽으면 같은 동물로서 여우도 슬퍼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까? 같은 여자이면 서 임부인의 불행에 대해 그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요?”

놀라고 겁난 조씨의 표정이 변했다. 심부인은 매우 노해 남부

인을 꾸짖었다.

“저 애가 큰며느리의 자격이 분명한데 너희가 어찌 감히 남자라고 부르는 게냐?”

남부인이 자리를 옮겨 사죄하며 말했다.

“입에 익은 말이라 갑자기 고치지 못하여 엄한 가르침을 받게 되니惶恐하옵니다.”

㉗안타깝다! 남부인의 꽃꽂하고 우뚝한 성품은 그 아버지의 풍모와 절개를 닮아서 말씨도 당당하구나, 조용하고 화해로운 윤부인의 성품과 달라 더 큰 화를 입게 되겠구나.

하루는 심부인이 윤부인, 남부인과 함께 수를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진의 유모 계화가 울면서 들어왔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무슨 연고입니까?”

심부인이 놀라고 두려워 그 연고를 물었다.

계화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조정에서 우리 화환림의 직첩을 거두시고 남부인 작은 마님을 소실로 삼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아전이 작은 마님의 직첩을 거둬가려고 왔습니다.”

조씨는 기뻐 날뛰며 남부인에게 말했다.

〔B〕“남자의 교만도 이제 그만이구려. 그래도 분에 넘치는 청옥패를 갖고 있을 셈이요?”

남부인은 다 듣고 나서도 안색을 흐트리지 않고 태연히 수를 놓았다. 윤부인은 눈물을 금치 못했다. 이윽고 화춘이 들어와 고했다.

“대관이 화진이 불효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천자께 고하여 직위를 빼앗아 서인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남부인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딸이니 채상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소실로 강등시켰답니다.”

심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진이 교만하고 방자하더니 천도가 바로잡혀 죄를 받게 되었구나.”

[중략 줄거리] 조씨로 인하여 남부인과 윤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나, 각각 지인들의 도움으로 구출된다. 모함과 독살 등의 계교를 꾸민 조씨의 무리는 옥에 갇히고, 그들의 꾀임에 빠졌던 화춘 역시 옥에 갇힌다. 반면, 화진은 그의 진심을 믿고 알아 준 벗들에 의해 옥에서 풀려나 무술을 익혀 해적인 서산해를 토벌해 큰 공을 세운다.

심부인은 잘못을 뉘우친 뒤로 태강소저를 금이나 진주, 보석처럼 아끼며 앉거나 누울 때조차 한시도 잊지 못했다. 밝았으로 화진을 생각하느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화진이 남방을 평정하러 간다는 첩서가 황제에게 보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쁜 기색으로 하늘에 축수했다.

“진이가 돌아오는 날이 춘이가 살아나는 날이로다.”

그러나 화진이 도중에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몹시 실망했다. 그때 박진규가 화진의 서찰을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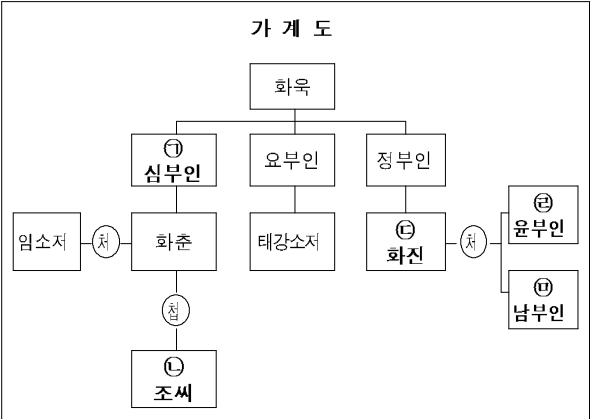
㉘심부인이 그 서찰을 다 읽고 나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태강소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인자하지 못해 이런 현명한 자식을 저버렸으니 손을 물어 피를 내도 후회가 막급이구나. 진이 오히려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자처하며 내가 덕이 있고 형이 원통하다고 말하니, 내가 뉘우친 줄 모르고 예전 같은 줄 아는가 보구나. 하늘로 가는 다리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구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지하에 숨고 싶구나. 내 어찌 얼굴을 들고 진을 대하겠느냐?”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47.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려고 하는 며느리의 강직함이 드러나는군.
 - ② ㉡: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기 좋군.
 - ③ ㉢: 윤부인과 남부인이 서로를 혈통의 사이가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군.
 - ⑤ ㉤: 선을 드러내고 의를 깨닫게 한다는 작품의 제목과 관련이 있군.

48. 다음은 화육 집안의 가계도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편입은 ㉠, ㉢, ㉣으로 하여금 가정 내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한다.
- ② ㉢이 겪는 고난은 ㉢과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③ ㉣은 ㉡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대결하려 하지는 않았다.
- ④ ㉣의 격렬하고 대담한 기질로 인해 ㉡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 형태를 보인다.
- ⑤ ㉢, ㉣은 화육에게 덕과 공경을 갖춘 며느리로 인정받았다.

49. [A], [B]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 ② [A], [B] 모두 각자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말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객관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B]는 상대방을 벌주려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 ⑤ [A]는 옛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질책하며, [B]는 상대방을 조롱하며 말하고 있다.

50. 다음은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서찰]의 내용을 추리하여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 전상서

①하루 한시도 어머니의 지극하신 덕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건만, 어리석고 악한 마음에 형님과 우애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사옵니다. ②죄 많은 이 몸은 천 번을 죽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남방을 평정한 후, 한 걸음에 달려가 형님의 억울한 사연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시 서쪽을 평정하라는 왕명을 받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왕명을 수행하고, 바로 ③어머니 곁으로 가서 형님의 원통함을 풀고자 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④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택입니다. 그러니 ⑤지난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아픔과 고난은 살아가면서 하나씩 되갚아 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존체를保重하시어 내내 건강하소서.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